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 (로마서 3:19-31)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는 우리를 말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를 주셨다.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후 그것을 누리는 비밀로 예배와 기도를 주셨다. 그리고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이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먼저 알려주신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이 함께 동참해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줬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중요한 대화가 있었다. 이것이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방법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대로 다 되었다. 바울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증거를 나타낸 사람이다. 우리가 잘 아는데로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에서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 때 사도바울은 깊이 기도했을 것이다. 그 기도시간에 사도바울에게 로마에 대한 소원을 심은 것이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고백하였다. 내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예들은 이 분들에게 평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평생의 전환점 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이 말씀을 받은 한나는 완전히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다. 순간적으로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완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말씀을 받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신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아무도 막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어야 할 또 하나가 말씀을 받는 것이다. 말씀을 받으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하신다. 당연히 그의 미래는 말씀의 여정이 되는 것이다. 렘넌트들 말씀 받고 그것이 평생의 언약이면 기적이 일어난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는다. 주로 노력으로 산다. 힘써서 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때로는 극단적인 인본주의를 쓰기도 한다. 그래서 살인도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우리는 언약을 잡는다. 그리고 조용히 그들에게 떠나 혼자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때를 주신다. 다시 한번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눈이 열리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

1. 하나님의 의를 가진자

오늘 본문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다 할수 없어서 앞부분을 볼 것이다. 19절과 20절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했다. 왜 율법을 주셨냐는 것이다. 19절에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다. 왜 율법을 주셨냐면 모든 사람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다.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수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죄인니까, 회개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다. 두 번째 기능은 20절이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끝났다. 도저히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된다는 답을 내고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끝이 아니다. 과정이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서 끝을 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눈에는 마귀의 자녀로 보인 것이다. 21절에 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한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이다.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았다고 하였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말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구약성경 전체가 증거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의 의이고 이것 말고는 길이 없다는 것을 보증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갖는다는 것이다. 율법으로는 절대 안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신 답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차별없이 주신다는 것이다. 차별은 없는데 조건은 있다. 그것이 믿음이다. 믿는 자에게는 차별없이 다 주신다. 이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은 자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저주에서 해방될 권세가 있고 기도 응답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사단의 머리를 항상 깰수 있는 무기를 가진 자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다. 하나님의 의는 죄와 다르다. 죄에서 해방된 자이다. 다시는 죄인으로 돌아갈수 없는 완전 의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으로 못 돌아간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고 결정이다. 끝났다. 절대로 다시 되돌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절대로 저주에 다시 빠지지 않는다. 절대로 사단 때문에, 영적 문제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법은 없다. 반드시 거기서 나오고 오히려 경복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권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건져낼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권세이다. 이것이 복음이고 언약이다. 그러니 죄인에 빠지지 않고 의인으로 결정해버렸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약속이고 비밀이고 반드시 되어지는 권세이다. 세상의 문제는 죄이다. 우리가 이런 저런 이유는 다 죄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원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그리고 죄 없으면 저주 없다. 그렇다면 죄에서 나와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의인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언약 되어야 한다. 이제는 저주가 없다. 확실히 해야 한다. 지금 있는 문제는 반드시 축복으로 바뀐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 비밀을 누릴 권세가 있다. 그리고 증인된 것이다.

벧후 2:7절에 보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롯을 의인이라고 하였는데, 롯의 삶은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안타까운 것이 너무나 많았다. 영적인 것이라고는 찾아볼수 없었다. 그리고 언약을 행한 기록은 한군데도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했는데, 롯은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망했다. 후손도 망했다. 그런데 구원 받았다. 놀라운 일이다. 롯은 천국에 갔다. 소돔고모라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다. 천사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 시간을 딜레이를 해줬다. 롯에게 산 밑으로 가라 하니까 가까운데 피하게 해주라고 하였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읽어보면 빨리 들어가라, 거기 가기까지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였다. 영적인 것이라고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은 계속 단을 쌓았는데 롯은 단을 쌓았다는 말은 없었다. 한번 믿고 사는 것은 전부 세상적으로 살았다. 그런데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의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번 의는 영원한 의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뿔뿔자가 없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막는다. 그래서 말씀을 잡았다고 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결정도 절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의도 그렇다. 바뀌지 않는다. 한번 영접하고 들어오면 바뀌지 않는다.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경복하게 된다. 안되는 분은 이것을 안해서 그렇다. 이미 모두에게 이 의가 다 들어가 있다. 왜 이게 내 삶에 안 나타나나? 안해서 그렇다.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고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계속 열어주신다. 렘넌트들, 미래가 불안하다.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답이다. 완전 답이다. 어느날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 멈춰지지 않는다. 계속 응답을 받는다. 문이 계속 열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약속

이 이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란다.

2. 문제

본래 하나님 나라에는 문제 없다. 천국에 문제 없다. 원죄 이전에도 문제 없었다. 사단이 일어나서 죄를 만든 이후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뒤집기를 원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약속을 주셨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약속의 피제사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것이다. 이것이 문제를 뒤집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원죄 때문에 온 상황을 뒤집는 약속이다. 그냥 믿고 끝내는게 아니다. 누리면 뒤집어 지는데. 그냥 덮고 끝내지 말라.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지금 안들어 오면 집에 가서 또 들으라. 계속 들으라. 이것보다도 더 바쁘고 중요한 일이 어디있는가? 가장 근본 언약이다.

인간에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오실 이유 없었을 것이다. 인간에게 문제가 일어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오신 것이다. 그렇다고 꼭 오실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왜 왔느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다. 사람들은 원한 사람 한명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주고 싶어하신 것이다. 그것 보고 사랑이라고 한다. 아무도 원한 사람 없고 댓가도 없다. 아가페 사랑이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고 이 언약, 모든 문제를 뒤집어 버린 이 언약을 완성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약속의 피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뒤집는 권세와 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무슨 언약인가? 창세 이후로, 원죄 이후로 일어난 모든 문제를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제사가 우리에게 언약이 되어야 한다.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언약이 되어야 한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귀한 일이다. 룯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망해버렸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도 해결하고 뒤집기 위해서 이 언약을 완성했다. 이 언약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뒤집어서 축복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을 위해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피흘리시고 완성하셨다. 이 언약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더 안타깝다. 언약으로 안들어오면 메시지가 맞으면 맞을수록 더 힘들다. 대충 아무 소리나 하고 지나가버릴 것 같으면 힘들지는 않다. 내가 안되는 것을 꼭 짚어서 이야기 하면 힘들다. 그런데 언약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나? 날개를 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는가? 언약이 되면 쉽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기 싫은가? 그러면 할 말 없다. 기도 하고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다. 지속하면 어느날 와서 말씀이 들어온다. 반드시 크든 작든 기적으로 연결된다. 이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다.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그러므로 언약으로 문제에 도전하는 거기에 반드시 축복이 나오게 되어 있다. 반드시 그렇다. 왜 축복이 없냐? 언약으로 문제에 도전을 안해서 그렇다. 문제가 왔을 때 허둥지둥 뛰어 다니지 않고 기도가 없다, 그런데 축복이 없으면 지탕이다. 하나님은 완성하셨다. 공이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다. 그런데 너무나 쉬운 것은 기도만 하면 공이 넘어간다. 이것은 처음부터 시작할 그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변함없이 적용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진 많은 기록들을 써 놨다. 교회사에도 많이 있다. 우리 중에도 있고 밖에 나가서 간증 들어보면 또 많이 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의 때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뒤집는 과정으로 삼으셨다. 요셉이 노예로 갈 때 누가 축복이라고 했겠는가? 그러나 그는 불평이 없었다. 요셉은 달랐다. 그에대한 기록은 창세기 37-50장까지 길다. 그런데 한번도 불평한 기록이 없다. 이미 언약이 있으니 원망할 필요 없었다. 언약잡고 묵묵히 기도한 것이다.

한번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리워했다. 영적인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아버지 야곱이 인본주의적이어도 영적인 것이 대단한 것이다.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눈이 있다. 12명 아들중에 요셉에게 뭐가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요셉은 일을 안 보냈다. 야곱, 사명자이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게 뭔지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너는 일하러 가지 말고 나와 같이 있어라. 그리고 옷도 다른 것 입혔다. 형들이 뭐라 하든 관계없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을 노년에 얻어서 더욱 사랑했다고 했다. 그런데 더 노년에 얻은 것이 베냐민이었다. 베냐민은 아이를 낳다가 엄마도 죽었다. 사람의 인정으로 하자면 베냐민을 끼고 있었어야 했다. 제일 어리니까. 야곱은 그게 아니었다. 영적인 것이 기준이었다. 요셉을 잡았다. 말이 통하는 것이다. 뭐를 이야기 했겠는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자기까지 오는 모든 이야기를 매일 했을 것이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젖 땔때까지 창세기 스토리를 매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가진 언약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이 이야기 하나로서 진짜 끝이다. 이 이야기 하나로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끝이다.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도 기적이 일어났다. 아무도 못 막는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걸 인생 중에 누려라. 그것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라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누가 요셉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겠는가? 모든 것을 뒤집는 과정이었다. 이런 예는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을 것이다. 근래에 봤던 한나도 그렇다. 아이가 없어 슬퍼하던 것은 오히려 축복이었다. 하나님이 축복을 만드는, 문제를 뒤집는 과정이었다. 그냥 듣지 말기 바란다. 그냥 안 듣는 비밀이 뭐냐면 말씀이 들어와야 한다.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냥 들리고 나가면 잊어버린다. 말씀이 들어오면 뛰어 가다가도 생각한다. 그러면 기도한다. 그래서 한나는 당대 최고의 중직자가 되었다. 아주 순간이다. 말씀 하나 들어왔는데 뒤집어 지는 것이다. 아들은 당대 최고의 사역자가 되고, 이런 엄마만 되면 되는 것 아닌가?

나도 어려운 때가 있었다. 아무리 기도해도 반응이 없었다. 정말 죽고 싶었다. 지금 되돌아 생각하면 그때 평생의 답을 얻었다. 만일 그 과정이 없었다면 아직도 얇은 곳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복음이나 세계복음화 같은 중대한 비밀에는 아직 발도 못 들여봤을 것이다. 아주 가벼운 인생을 살고, 맨날 입으로 말만하고. 전부다 뒤집는 과정이었다.

한 개만 마음에 담기 바란다. 복음은 문제를 뒤집어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일부러 오셔서 죽으시고 피흘리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은 맞다는 증거이다. 뭐가 맞다는 것인가? 내가 죽고 피흘린 이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뒤집는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는 것이다. 이 부활을 통해 뭐를 말하고 싶은가? 내가 그 언약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너의 인생의 답은 나의 죽음과 피야.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부활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증명하신다. 복음은 모든 문제를 뒤집어서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문제와 고난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정이다.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문제의 복음으로 도전하기 바란다. 하나님이 해결해달라는 것은 옛날에도 많이 했다. 복음을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이 해결해주시면 증인되겠다고 해야 한다. 그러면 도전하게 되고 나의 위치가 보이게 된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때 보이게 된다. 그러면 고치면 된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사실적인 증인이 되는 것이다. 진짜 증인이 되는 것이다. 정말로 이것이면 끝이다. 정말로 너 그리스도 하나면 너의 모든 인생 끝이야, 뒤집어 버려야 한다.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 없으시다. 그래서 뭘 요구하실 이유도 없다. 정말 눈을 열고 답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